

# 『傷寒論』 ‘弦’에 대한 고찰 : 小柴胡湯加減方を 이용하여 치료한 증례 2례에 근거하여

허주<sup>1</sup> · 이성준<sup>2\*</sup>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경희열린한의원
2. 대한상한금궤의학회

## A Conceptual Study on ‘Hyun(弦)’ in Shanghanlun : Based on 2 Cases Treated by Modified Soshiho-tang (Xiao-chai-hu-tang in China and Syo-saiko-to in Japan)

Joo Heo<sup>1</sup> · Sung-jun Lee<sup>2\*</sup>

1. Kyunghee Yeolrin Korean medical clinic, Jeongjo-ro, Jangan-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2. Office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14,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弦 in Shanghanlun through analyzing two cases.

**Methods :** Two cases treated with modified Soshiho-tang, which is administrated when 弦 aggravates chief complaints, were analyzed. All of the cases were diagnosed by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Results :** The patients’ chief complaints of all 2 cases were improved after administration of modified Soshiho-tang. As pulling symptom was reduced in all 2 cases, patients’ disease were relieved. Through the etym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treatment results, the clinical meaning of 弦 is deduced as ‘pulling’.

**Conclusions :** The etymological and clinical analysis suggest that the concept of ‘弦’ maybe defined as ‘pulling’ in Shanghanlun.

**Key words :** Hyun(弦),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Herbal medicine, Soshiho-tang

\* Corresponding author : Sung-Jun Lee. Office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14,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baekpal@naver.com.

· Received : 2023/12/01 · Revised : 2023/12/05 · Accepted : 2023/12/11

## 서 론

전통적으로 脈診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표에 촉지함으로써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진단의 부위로는 遍診法, 三部診法, 寸口診法 등이 사용되었으나, 후세에 이르면서 寸口診法으로 정착되었다.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脈의 位, 數, 形, 勢에 따라 대략 20여종의 脈象으로 분류하여 인체 내부의 병변을 관찰하고자 하였다<sup>1)</sup>.

弦脈은 임상에서 病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빈번히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전 문헌에 따르면 弦脈의 의미를 대체로 팽팽한 활시위 또는 현악기의 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 사전<sup>2)</sup>에서는 '脈이 곧고 길어 마치 가야금 줄을 누른 것처럼 손가락을 가로지르는 脈象'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의 한방 진단학에서는 문헌에 기반하여 弦脈의 임상 의의에 대해 크게 肝鬱, 痛泄, 肝旺, 虐疾, 痰飲, 虛寒, 諸痛의 7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현대 생리학적으로는 혈관의 기능 이상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혈관 박동 특성이 弦脈의 형태적 특징과 상통하므로, 혈관의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하는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sup>3)</sup>.

한편 『傷寒論』 康平本 15字行은 黃帝內經과 별개의 맥락으로 연구할

필요성<sup>4)</sup>이 있으며, 독립적인 진단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연구<sup>5,6)</sup>가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傷寒論』 康平本 15字行 내의 글자의 의미는 전국시대로 추정되므로 설문해자가 저술된 시대 이후의 글자의 의미 및 활용과는 차이가 있다<sup>7)</sup>. 『傷寒論』 康平本 15字行의 저술시기, 특이성 및 진단체계의 특징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의미를 규정하고 및 임상 의의를 탐색할 수 있다.

‘弦’은 『傷寒論』 康平本の 「辨太陽病」, 「辨陽明病」, 「辨少陰病」에 걸쳐 언급된다. 본 연구에서는 ‘弦’의 어원을 고문자학적으로 분석하여 『傷寒論』 康平本 15字行 내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의미를 바탕으로 ‘脈弦’으로 진단하여 호전 경과를 나타내는 환자들의 특징, 질병의 발생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진단 용어로서의 규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본 론

### 1. 康平本 『傷寒論』의 ‘弦’에 대한 분석

1)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에서의 분석

①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에서 ‘弦’은 처방이 기록된 조문에 국한

하여 조사하면 총 3회 등장한다. 『辨太陽病』에 1회, 『辨陽明病』에 1회, 『辨少陰病』에 1회 등장한다(Tab.1).

② 脉 뒤에 이어서 사용된다.

③ ‘弦’ 과 처방이 동시에 등장하는 조문 총 3개 중에 2개의 조문에서 小柴胡湯이 언급되며, 小柴胡湯은 ‘弦’ 과 관련된 치료법으로는 가장 자주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弦’ 의 용례를 분석하면, 脉을 설명하는 개념 또는 脉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小柴胡湯이 脉弦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어원에 따른 분석<sup>8)</sup>(Tab.2)

‘弦’ 은 뜻을 나타내는 활 궁(弓) 과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玄’ 이 합쳐진 글자로서 ‘활시위’ 를 뜻한다.

전서체 역시 실이 활에 매여진 것으로부터 활의 시위라는 뜻을 그렸으며, 이후 현악기의 줄이나 반월형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傷寒論』 康平本에 기술된 용어는 병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병적인 신체 상태가 활시위를 당길 때의 느낌과 유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3) ‘弦’ 의 임상적 의미

‘弦’ 은 임상적으로 ‘당기는 느낌’ 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康平本 『傷寒論』 내 ‘弦’ 의 의미를 적용한 증례 2례 분석


1) 증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희열린한의원에 요추부

Table 1. The Provisions of Using 弦 in 『Shanghanlun』

Chapter	Contents
Diagnosis of Greater yang disease	陰脉弦
Diagnosis of Yang brightness disease	脉弦
Diagnosis of Lesser yin disease	脉弦遲

Table 2. The Ancient Characters of 弦<sup>9)</sup>

chinese letter	甲骨文(Oracle)	說文解字(Seal)	六書通(Liushutong)	Meaning
弦	-			Bow string

신경뿌리병증으로 인한 하지 당김 및 저림 (이상 증례 1),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인성 과행, 저림 및 두드러기 (이상 증례2)를 주요 증상으로 방문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기술되었다. 대한상한급제의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P01-202302-01-023, <https://public.irb.or.kr/>)를 거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환자의 증상을 변병진단 체계를 통해 ‘弦’이 포함된 조문으로 진단하여 환자에게 小柴胡湯加減方 (Tab. 3)을 투약하였다. 小柴胡湯을 구성하는 약재인 黃芩은 간독성의 가능성<sup>9)</sup>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증례

의 환자들은 간 질환 과거력이 없지만 안전성을 고려하여 黃芩과 동일하게 꿀풀과에 속하면서 氣味가 유사한 丹蔘으로 대체하였다.

## 증례 1

1. 환자명 : 000

2. 환자 기본 정보 : 여 / 59세  
/160cm / 76kg / 기혼 / 사무직

3. 주소증(C/C) :

- 1) 요통 및 하지 당김, 저림
- 2) 경추통 및 상지 저림

4. 발병일(O/S) : 2021년 초

5. 현병력(P/I) :

상기 환자 요통 및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경추통 및 경추부 신경뿌리병증을 호소하여 local OS에서 신경차단 주사 및 본원에서 침치료 후 별무호전하여 한약치료 의뢰함.

6. 가족력 : 없음

7. 과거력 : 없음

8. 현재 사용 중인 약물 : 없음

**Table 3. Composition of Modified Soshiho-tang<sup>10)</sup>**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g)
柴胡	Bupleuri Radix	24
半夏	Pinellia Rhizoma	9
人蔘	Ginseng Radix	9
大棗	Zizyphi Fructus	12
生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9
甘草	Glycyrrhizae Radix	9
丹蔘	Salvia Miltiorrhizae Radix	9

Dried herbs above are weight of herbs of one day dose. The herbs above were boiled with water, and residues were removed. The patient was administered 120cc each, three times a day.

## 9. 주요 임상 증상

1) 食慾 : 아침(07:30), 점심(12:00), 저녁(18:30). 한식 위주 식습관. 저녁 식사 이후 과일 종류 간헐적으로 섭취함

2) 消化 : 평소 더부룩함이 미약하게 있으나, 소화제를 복용할 정도는 아님

3) 口部 : 구내염 및 혀바늘 자주 발생함

4) 汗出 : 땀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남

5) 大便 : 1회/일, Bristol stool type 4~5

6) 小便 : 잔뇨감. 수면 중 자세를 바꾸면 소변이 새는 느낌

7) 寒熱 : 상열감. 간헐적으로 감기기운을 느낌

8) 頭面 : 좌 측두부 통증. 눈 침침함

9) 呼吸 : 기상 시 가래가 끼는 느낌. 축농증

10) 胸部 : 가슴 답답함.

11) 腹部 : 별무

12) 睡眠 : 00:00 취침~05:00 기상.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짐

13) 身體 : 아침에 부종이 심함. 수면 중 붓는 게 느껴진다고 함. 경추통 및 상지 저림, 요통 및 하지 저림, 당김 호소

14) 性慾 : 별무

15) 婦人 : 분비물이 많은 편

16) 스트레스 : 말이 많은 편. 자

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음

##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le 3.)

(1) 臨床 所見

① 心驚 부모님 간병하는 과정에서 주소증이 심해짐

② 움직이면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느낌

③ 부종

(2) 辨病診斷 : 太陽之爲病

① 脉浮 : 간병으로 팔을 과도하게 쓰면서 병이 발생

② 頭項強痛 : 뒷목이 많이 걸리는 편

③ 而惡寒 : 감기에 자주 걸림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太陽病을 진단(Tab.3)하였다.

(3) 條文 診斷 : ㉔100. 傷寒, 陽脉濇, 陰脉弦, □□先與小建中湯, 不差者, 小柴胡湯主之<sup>10)</sup>.

① 傷寒 :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

② 陰脉弦 : 움직일 때 다리가 많이 당김

위의 내용을 근거로 태양병 43번 桂

**Table 4.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Case 1>**

Interpretation of Etym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A disease that occurs in areas exposed to sunlight due to excessive activity	大陽病	Excessive activity
Pulling when moving	陰脉弦	Tingling and pulling legs
A cold	傷寒	Cold

枝加厚朴杏子湯을 조문 진단하였다. 주요 내용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2) 치료 평가 도구

Numeric Rating Scale(NRS)을 사용하여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의 정도를 10, 통증이 없음을 0으로 하여 평가 당시에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수치화하였다.

**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小柴胡湯加減方, 1일 3회, 1회당 120cc, 60일 복용

2) 생활지도

과로 및 부종이 신경뿌리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야식을 피할 것을 지시함.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복약 60일 후 재진

① 저림 및 당김 NRS 10→2. 증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상 생활에 크게 신경쓰이는 상태는 아님

② 부종이 감소하여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았음에도 6kg 정도의 체중이 감소함

③ 잔뇨감 소실

④ 수면의 질이 높아짐

**증 례 2**

1. 환자명 : 000

2. 환자 기본 정보 : 여 / 65세 / 159cm / 64kg / 기혼 / 제조업

3. 주소증(C/C) :

1) 보행 시 다리의 과도한 당김 및 저림

2) 목, 얼굴, 손가락 부위의 두드러

기

**4. 발병일(O/S) :**

- 1) 2017년부터 증상 인지하였으며, 21년 9월에 증상 심해짐
- 2) 발병한 지 20년 이상 된 것 같다고 함

**5. 현병력(P/I) :**

- 1) 제조업 근무 시 요통 있던 와중에 4년 전 간병하면서 증상이 심해짐. 척추관 협착증 Dx. 후 local OS에서 신경 주사 치료 및 본원에서 침치료 시행 후 호전 악화 반복하여 한약 치료 의뢰함
- 2) 증상 악화될 때마다 항히스타민제 복용함

**6. 가족력 : 없음**

**7. 과거력 :** 2019년 좌 유방 물혹 소견

**8. 현재 사용 중인 약물 :** 항히스타민제 간헐적 복용

**9. 주요 임상 증상**

- 1) 食慾 : 아침(08:30), 점심(12:30), 저녁(18:00), 저녁 식사 후 과일, 빵 등을 섭취함
- 2) 消化 : 더부룩함
- 3) 口部 : 별무
- 4) 汗出 : 땀을 많이 흘리는 편. 식은땀

5) 大便 : 1회/일. Bristol stool type 4~5

6) 小便 : 1회/3~4시간. 피로하면 방광염 발생

7) 寒熱 : 몸살 기운 자주 있음. 열나면 두드러기 발생함

8) 頭面 : 안면부 상열감 자주 발생함

9) 呼吸 : 별무

10) 胸部 : 별무

11) 腹部 : 별무

12) 睡眠 : 23:00 취침 ~ 07:00 기상. 중간에 자주 깨며, 06:00 정도에 알람 없이 눈이 떠짐

13) 身體 : 1시간 정도 보행하면 다리가 몹시 당기면서 저림. 수면 중 좌 비복근 경련. 목, 얼굴, 손가락 부위 두드러기

14) 性慾 : 별무

15) 婦人 : 폐경

16) 스트레스 : 겁이 많은 편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le 5.)

(1) 臨床 所見

① 간병 후 다리 당김 및 저림 심해짐

② 열이 나거나, 야식을 먹고 자면 두드러기 심해짐

(2) 辨病診斷 : 太陽之爲病

- ① 脉浮 : 간병하여 무리하는 상태
  - ② 頭項強痛 : 몸의 통증을 자주 호소함
  - ③ 而惡寒 : 감기에 자주 걸림
-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大陽病을 진단(Tab.5)하였다.

(3) 條文 診斷 : ㉔100. 傷寒, 陽脉瀼, 陰脉弦, □□先與小建中湯, 不差者, 小柴胡湯主之<sup>10)</sup>.

- ① 傷寒 :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
- ② 陰脉弦 : 움직일 때 다리가 많이 당김

2) 치료 평가 도구

Numeric Rating Scale(NRS)을 사용하여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의 정도를 10, 통증이 없음을 0으로 하여 평가 당시에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수치화하였다.

11. 치료적 증제

- 1) 한약 투여  
小柴胡湯加減方, 1일 3회, 1회당 120cc, 90일 복용
- 2) 생활지도  
과도한 활동을 줄이고 야식을 조절할 것

12. 치료기간 및 경과

- (1) 복약 90일 후 재진
- ① 당김 및 저림 NRS 10→3
- ② 두드러기 소실되어 항히스타민제 복용 중단함
- ③ 방광염 소실
- ④ 감기 기운 및 상열감 소실

3. 고문자학적 해석에 의한 ‘弦’의 개념과 증례 2례 진단 요점의 연관성

경희열린한의원에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방문한 환자 중 본 연구에 활용한 증례 2례 환자들의 평

Table 5.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Case 2>

Interpretation of Etym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A disease that occurs in areas exposed to sunlight due to excessive activity	太陽病	Excessive activity
Pulling when moving	陰脉弦	Tingling and pulling legs
A cold	傷寒	Cold



균 연령은 62세, 성별은 여성 2명이었다. 환자들의 방문시 주 호소 증상은 다리 당김, 저림, 상지 저림, 부종, 두드러기, 방광염 등이었다. 이 환자들에 대한 변병진단 시의 요점은 <증례 1>환자는 움직일 때 다리의 당김 및 저림이 심해진다는 것이며, <증례 2>환자 역시 보행 시 다리의 당김 및 저림이 심해진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문자학적인 연구를 통한 '弦'의 임상적 특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환자들이 小柴胡湯加減方을 복용한 기간은 평균 75일이었다. 그동안 다른 치료를 병행한 환자는 0명이었으며, 한약의 부작용으로 보이는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환자들의 신체 정보상 공통점은 소화 장애 및 부종, 감기기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이다. <증례 1> 환자는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며, 부종이 심하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증례 2> 환자는 야식에 의해 붓게 되고, 감기 기운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 '弦'은 움직일 때 당기는 느낌과 상관성이 있으며, 小柴胡湯 조문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부종, 소화장애, 새벽에 일어나는 수면 습관과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찰

『傷寒論』 康平本은 가장 오래된 판본 중 하나이며, 원문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傷寒論』 康平本の 서술체계를 연구한 결과 『傷寒論』 15字行의 내용이 질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나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연관이 있

Table 6. The Main Diagnostic Points and process summary of '弦' in <Case 1, 2>

	Gende r/Age	Chief Complaint /Diagnostic Points	Site of pulling	Duration of herbal medication	Adv erse effec t
<case 1>	F / 59	Tingling and numbness when moving /Pulling when moving	Leg	60 days	-
<case 2>	F / 65	Tingling and numbness when moving /Pulling when moving	Leg	90 days	-

으며 동시에 선행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傷寒論』 康平本 15字行은 전국시대 무렵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시기에 활용된 한자의 의미 및 용례가 설문해자(說文解字)가 저술된 이후의 시기와 다른 경우가 있다<sup>11,12,13)</sup>. 따라서 『傷寒論』 康平本 에 기록된 글자의 의미를 어원의 의미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은 『傷寒論』 康平本 15字行의 실천적 이해 및 활용, 나아가 진단의 재현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弦에 관한 연구로는, 전통 한의학의 脈에 대한 개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弦脈에 대한 문헌 연구는 그 의미를 대체로 ‘바르고 곧다’, ‘눌러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길이가 대체로 길다’, ‘팽팽한 시위에 비유된다’ 로 표현하고 있다<sup>14,15)</sup>. 弦脈의 현대적 연구로는 임상적 의미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sup>3,16,17)</sup>. 반면 『傷寒論』에 기술된 弦 단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傷寒論』에 국한하여 弦의 의미 및 임상적 활용이 기존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傷寒論 精解』를 참고하였다. 弦이 포함된 조문의 해석은 진단에 활용된 조문으로 한정한다<sup>18)</sup>.

『傷寒論 精解』는 ‘100. 傷寒, 陽脈瀼, 陰脈弦, 法當腹中急痛. □□先與小

建中湯, 不差者, 小柴胡湯主之.’ 을 ‘傷寒證에서 맥상이 浮按하면 滯澁하고 沈按하면 弦勁하다면 이치에 따라 당연히 腹中에 拘急한 증상이 있을 것이니...’ 로 해석하였다. 『傷寒論 精解』는 조문을 15字行과 嵌註의 구분 없이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을 하였으며, 『傷寒論』 康平本에서는 脈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傷寒論 精解』는 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통 한의학에서 연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脈을 切診의 한 종류로서 인식하고 해석하였다.

한편 노 등<sup>19)</sup>이 제안한 『傷寒論』 康平本の 脈에 대한 해석, 『傷寒論』 康平本이 저술된 시기 및 당시의 글자 사용 습관을 고려하면, 弦의 독립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원학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서체의 자형을 분석한 결과, ‘弦’의 자형 및 어원은 활시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2). 우리는 이러한 어원상의 의미를 『傷寒論』에 적용하여 2개 증례를 분석한다면, ‘弦’과 ‘당기는 느낌’의 연관성을 진단 및 치료 경과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증례 2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2명의 환자 모두에게서 주소증과 병력상 공통적으로 당기는 느낌을 주로 호소하며, 당기는 느낌에 의해 병이 심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증례 1>은 간병하면서 무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

에서 다리의 당김 및 저림이 발생하였으며, 부수적으로 부종과 연관된 체중 증가를 호소하였다. <증례 2>는 간병 하면서 무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리 당김 및 저림, 신경인성 파행이 발생하였으며, 부수적으로 부종, 열감에 의한 두드러기를 호소하였다. 부수적으로 부종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는데, 小柴胡湯 조문을 활용함에 있어서 부종을 고려해볼 수 있음<sup>20)</sup>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례들은 모두 小柴胡湯 조문으로 진단되었는데, 진단 근거가 되는 ‘弦’은 반드시 脉 뒤에 기술된다. 인체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연관된 의미인 ‘脉’이 먼저 기술되고, 당기는 느낌과 연관된 의미인 ‘弦’이 바로 이어서 기술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脉弦’은 ‘움직임과 연관된 상태에서의 당기는 느낌’이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본 증례 환자의 주소증을 야기하는 신경뿌리병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의 임상 증상은 다양한 신경학적 호소를 포함한다<sup>21)</sup>. 일반적으로 저림, 터질 것 같은 느낌, 감각 이상, 하지 위약감, 당기는 느낌 등 여러 신경과 연관된 불편감을 얘기한다. 여러 신경학적 증상들 중에서 움직임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당기는 느낌이 주소증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脉弦’ 조문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과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小柴胡湯으로 급성 간염이 야기되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유발 원인은 黃芩으로 추정된다. 黃芩은 주요 성분인 skullcap diterpenoid의 CYP3A4에 의한 활성중간대사체를 생성하며, 이를 통해 간세포의 세포자살을 유도하여 독성 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黃芩 대신 같은 꿀풀과에 속하며 氣味가 비슷한 본초인 丹蔘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김이 조절되면서 주소증이 개선되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丹蔘이 포함된 小柴胡湯加減方이 小柴胡湯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小柴胡湯을 활용한 임상 연구로는 구 등<sup>23)</sup>의 뇌교경색을 동반한 파킨슨병 1례, 임 등<sup>24)</sup>의 소화장애를 동반한 식후포만감 1례, 임<sup>25)</sup>의 비만 증례 1례, 민 등<sup>26)</sup>의 아토피 피부염 1례, 류 등<sup>27)</sup>의 만성기침 1례, 노 등<sup>28)</sup>의 아토피 피부염 2례, 박 등<sup>29)</sup>의 부종 1례가 있으며, 허 등<sup>20)</sup>의 부종과 滿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小柴胡湯이 다양한 병적 상태에 활용되고 있지만 弦을 진단 근거로 진행된 연구는 아직 없다.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小柴胡湯은, 弦이라는 기준을 통해 조문 진단의 명확성과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弦’에 국한하여 진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문 전체의 해석 및 진단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으며, ‘弦’ 이 기술된 다른 조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설에 기반하여 유효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小柴胡湯, 小建中湯, 回逆湯이 弦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가 토대가 되어 진단적 의미로서 弦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결론

康平本 『傷寒論』 15字行의 ‘弦’을 고문자학적으로 해석하고, 다리 당김, 저림, 신경인성 파행, 부종, 두드러기, 방광염 등을 주소증으로 방문하여 小柴胡湯加減方을 복용한 환자들의 증례 2례에서 진단요점과 연관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임상적 해석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1. 『傷寒論』의 15字行에 등장하는 ‘弦’은 ‘당기는 느낌’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증례 2례에서 공통적으로 ‘당기는 느낌’이 주소증의 발병, 호전과 악화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弦’이 포함된 조문으로 진단 및 처방함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 Reference

1. Lee BK, Park YB, Kim BH. Oriental Diagnostics. Seongbosa. 2012:161.
2. Dictionary of oriental medicine compilation committee. Dictionary of oriental medicine 11. Seoul:Kyung Hee University Press. 1999:238.
3. Ryu HH, Lee J, Jeon YJ, Lee YJ, Lee SW, Kim JY. Modern medical scientific study on the string puls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22(3): 535-9.
4. Park KM, Choi SH. The comparative study of 『sanghanron』 and 『hwangjena egyeong』 through historical study on 『Gangpyung-Sanghanron』. J. Korean Medical Classics. 1995 ; 9 : 263-300
5. Lee SJ, Lim JE.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2013.
6. Lee SI. A philological research on the way of medical study of shanghanlu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2014;22(2):1-13.
7. Moon KS.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misinterpretations about chinese bronze characters. Journal of regional culture research. 2013;12:181-218.
8. Ha YS. Hanjaeowonsajeon. 3Publication. 2014:741.
9. Sears R. Chinese etymology. Available from URL : <http://hanziyuan.net>

10. Lee SI. Comparison of *shanghanlun*.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29, 30-1,44,206.
11. TW Kim. Image and hieroglyph of China. Seoul:InterBooks. 2015 : 37,101,110-3.
12. Son YC. The science of chinese characters. Seoul:Pagijing. 2014;129,366-78.
13. Choi A. Chinese character lecture. Seoul: Tongnamu. 1995 : 104-6.
14. Cho EK, Choi JM, Kim YJ, Hong JW, Shin SW. Study on *shanghanlun* bianmaifa (1).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1;25(6):945-60.
15. Choi JY, Park KC, Jeong HS, Ha KT, Shin SW. The study on *shanghanlun* pingmaifa (1).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2;25(2):63-96.
16. Kim SH, Hong SH, Jung HJ, Park WH. A study on pulse condition appeared at classic with pulse condition by electro pulse machine ( I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2009;13(1):36-44.
17. Kang HJ, Kwon YS, Kim DL, Kim KC, Yim YK. A study on wiry pulse in hypertensive patients analyzed at 5 levels of applied pressure using 3 dimensional pulse imaging analyzer.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2010;27(1):1-12.
18. Moon JJ, Ahn KS, Kim SH, Park JH, Kim DH, Choi DY, Shin YI, Um HS, Ji GY, Lee SG, Kim JB, Lee GG, Maeng WJ, Kim YM. *Shanghanlun jeonghae*. Hanimunhwasa. 2013;225-7.
19. Rho YB, Lee JH, Ha HI. The fundamental meaning of mai and *shanghanlun* provisions based on paleography. J of KMediACS. 2015;7(1):1-14.
20. Heo J, Lim EK, Lee SJ. A conceptual study of “man (滿)” in *shanghanlun* based on 4 cases treated with modified soshiho-tang. 2021;13(1):61-79.
21. Sarwark J. Essentials of musculoskeletal care. Beommuneducation. 2013;631-3,657-64.
22. Park YC, Park HM, Lee SD. Inducible mechanisms for hepatotoxicity caused by traditional korean medicines in a view of toxicology. J Korean Oriental Med. 2011;32(4):48-67.
23. Koo BM, Yang JC, Kim SK, Lee KY, Kim JY. A clinical study about the effects of soshiho-tang on a case of parkinson's disease with pontine infarction. J Korean Oriental Med. 2007;28(2):34-43.
24. Yim JM, Lee SM, Kim WI. A case report on nausea, retching, vomiting and postprandial fullness treated with soshiho-tang.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2013;21(2):158-164.
25. Lim EK. A case report of obesity treated with soshiho-tang gagamb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5;7(1):65-73.
26. Min JH, Jo SH.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soshi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5;7(1):75-85.
27. Ryu HC, Lee SI. A case report of chronic cough treated by soshi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6;8(1):99-108.
28. Noh HM, Park SG, Park, IH, Jo EH, Pa

- rk MC. Two cases of atopic dermatitis with gastrointestinal disorders treated with soshiho-t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3):208-16.
29. Park SY, Lee SJ. A case report of pitting edema treated by soshi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7;9(1):37-45.